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2부 27

백년만의 귀향

광종7년(956) 8월.

벽라도 쪽으로 해가 기울자, 송악산 산등성이를 타고 소슬바람이 넘어왔다. 여름 내내 기승을 부렸던 불별더위가 조만 간에 꺾일 것이라는 조짐이었다. 왕비 별궁에 있던 대목왕후는 찻상을 준비했다. 정무를 마친 왕이 별궁으로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 왕이 밤을 보내고 갈지도 몰랐다. 8월 들어서 30대 초반의 광종이 대목왕후를 만나러 별궁에 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찻상에 오른 그릇들은 모두 탐진 관음사 스님들이 보내준 자기들이었다. 향아리, 찻잔, 다관, 다식접시와 퇴수기 등은 모두 탐진가마에서 나온 청자자기들이었다. 찻물을 담은 향아리는 청록색 빛깔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뇌록색 빛깔로 굽은 해무리 모양이었다. 왕족이나 부호들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고가의 자기들이었다.

대목왕후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있었다. 왕에게 할 말이 목울대까지

올라와 있었다. 왕이라고 해도 할 말을 못할 만큼 어려운 사이는 아니었다. 왕과 자신은 모두 태조 왕건의 자식으로서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였다. 왕은 태조의 셋째왕비 신명왕후 유씨, 왕비는 태조의 넷째왕비 신정왕후 황보씨 소생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남매들끼리 족내혼을 시킨 것은 신라 왕실 때부터 내려온, 외척의 발호를 막기 위한 왕가 전통이었다.

대목왕후가 마음속으로 베풀고 있는 까닭은 왕이 전국에 내린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때문이었다. 노비안검법이란 노비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부당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면천해주는 일종의 노비해방령이었다. 호족들은 많은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1천 명이 넘는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는 호족들도 있었는데, 노비의 상당수는 고려 통일전쟁 과정에서 포로로 붙잡힌 군사이거나 양민 출신이지만 호족에게 큰 빚을 져 어쩔 수 없이 노비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 호족 중에서는 태조 왕건 편에서 고려 건국 때 무공을 세운 이들이 많았다. 나주 오씨, 충주 유씨, 평산 박씨, 청주 김씨 등은 대호족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딸을 왕비로 보냈다. 그러면 왕들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졌으므로 왕비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대호족의 노비들은 농사를 짓는 노동력이자, 호족을 호위하는 사병이 되어 왕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이기도 했다. 호족들의 사병이 왕의 군사보다 강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광종은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제안대로 노비안검법의 칙서를 전국에 내려 보냈던 것이다.

대목왕후의 친정인 황주 황보씨 가문의 노비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친정의 노비들을 내보내면 상당수의 일손과 사병이 사라지니 가세는 예전과 달리 기울 수밖에 없었다. 다른 대호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노비가

면천이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관아에 가서 자신이 양민 출신이었다는 것을 신고만 하면 바로 노비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왕이 기별대로 초저녁에 대목왕후 별궁에 나타났다. 별궁 문 앞까지 호마를 타고 와서는 말구종 신하에게 맡기고 성큼성큼 걸어들어왔다. 대목왕후가 쟈걸음으로 마당으로 나가 왕을 맞이했다.

“상감마마, 어서 오십시오. 오랜 만이옵니다.”

“별궁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것 같소. 그동안 바빴소.”

“언제쯤 오시나 하고 기다렸사옵니다.”

“이번에 큰일을 하나 처리했소. 아마도 당분간은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요.”

대목왕후는 입을 다물었다. 기회를 보면서 심중의 말을 하려고 그랬다. 오랜만에 찾아온 광종의 심기를 처음부터 불편하게 자극하고 싶지 않았다. 왕이 말한 ‘큰 일’이란 노비안검법일 터였다. 노비안검법의 칙서로 대호족들의 불만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노비들의 해방은 대호족들의 수족이 잘려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흔드는 호족들의 위세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날이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소. 서늘한 바람이 나의 지친 심신에 힘을 주는 듯하오.”

“발효차를 드시면 기운이 더 나실 것입니다.”

마루로 올라앉은 왕이 찻상을 보고는 놀랐다.

“청자 다기들이 아름답기 그지없소. 어디서 구한 다기들이오.”

“3년 전에 국사가 되신 겸신대사님께서 선물하신 다기인데 탐진 무위사에서 보낸 것이라고 하옵니다.”

태조 때 선각대사 형미가 주석하면서 절 이름이 관음사에서 무위사로 바뀌고 사세가 커졌던 것이다. 고안현(해남 마산면) 출신인 형미는 태조 왕건의 군법사로 활약하다가 궁예에게 죽임을 당한 당나라 유학승 출신 선승이었다. 탐진 도공들은 차를 좋아하는 형미에게 청자다기들을 보시켰고,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선승들은 무위사를 찾아와 청자다기를 구해갔다. 왕건은 물론 그의 아들인 혜종, 정종도 마찬가지였다. 형미 사후에도 무위사 주지를 통해 청자술항아리와 청자술잔, 청자접시 등을 구해 호족들에게 선물하거나 고가에 팔았다.

겸신은 화엄종의 고승이었다. 고승들은 거대종파인 천태종에 많지만 왕은 군소종파인 화엄종에서 국사를 선택했다. 이 역시도 호족들과 친분이 두터운 천태종 고승을 피한 광종의 결단이였다. 불교 쪽에서도 자신의 후원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책이였다.

“나의 정궁 별실에 있는 술항아리와 다기들은 모두 월주청자지요. 후주 사신으로 쌍기가 왔을 때 나에게 진상한 것이라오. 나도 우리나라의 탐진에서 만든 청자를 겸신대사에게 부탁해야겠소.”

후주에서 월주청자를 생산하지는 않았다. 후주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 남쪽 송나라에서 보낸 교역 물품 중에 하나가 월주청자였다. 월주청자는

후주의 왕실에서도 명성이 있었던 것이다.

“탐진청자가 더 아름답다는 것이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소.”

“상감마마, 아마도 탐진청자가 모두 이와 같은 최고품은 아닐 것이옵니다. 도공들이 최고급 청자만 골라서 절에 보시했을 것이옵니다. 그런 까닭에 유난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는 어디서 온 것이오?”

“지리산 옥계사 차라고 하옵니다.”

“옥계사라면 신라 흥덕왕 때 김대렴이 심은 차가 아니오?”

“겸신대사님 말씀도 그러하옵니다. 겸신대사님께서 제자 편에 가져온 차이옵니다.”

차를 마신 뒤 별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술상이 나왔다. 궁녀들이 순식간에 술상을 내왔다. 술상의 술항아리와 술잔, 안주접시 등도 모두 탐진청자였다. 대목왕후는 겸신대사를 통해서 탐진청자를 구하곤 했는데, 모두 탐진 관음사에서 보낸 청자들이었다. 관음사에 내려가 있는 겸신대사의 제자들이 개경을 오가며 심부름했던 것이다.

술을 서너 잔 마신 왕이 대목왕후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왕과 왕비 사이라기보다 오빠가 동생을 쳐다보는 눈빛이었다. 잠시 후 왕이 말했다.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소.”

“사실은 있사옵니다.”

“내가 들어주지 못할 것은 없소. 무엇이든 말해 보시오.”

대목왕후는 기뻐다 싶어 말했다.

“상감마마, 노비안검법을 시행하면 노비들은 좋아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힘을 보탤던 호족들과는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옵니다.”

“왕위에 오른 지 7년, 지금까지는 호족들과 더 없이 좋았지요. 허나 호족들이 점점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있어요. 오만해진 호족도 있네요.”

“호족들의 공을 아바마마처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려는 호족들이 아바마마를 도와서 세운 나라이옵니다.”

“왕비는 호족과 노비 중에 누구 편을 들겠느냐고 묻는 것 같소.”

“그게 아니옵니다. 호족의 공을 잊지 마시라는 것뿐이옵니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과 전쟁하면서 고려를 건국할 때 호족들의 무공이 큰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대목왕후는 호족들의 공을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종의 결심은 단호했다.

“호족들은 지금까지 부귀영화를 누렸소. 그러니 보상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오. 나는 노비안검법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소.”

“상감마마, 저의 외가 황주 황보씨 가문과도 척지고 사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대목왕후의 외가인 황주 황보씨는 태조 때부터 대표적인 왕의 후원 세력이었다. 대목왕후가 어머니 성을 따를 정도로 태조를 도운 대호족이었는데도 돌아서겠냐는 것이 왕비의 항변이었다. 왕이 하루아침에 노비들을 해방시켜 황보씨 가문의 권력과 부를 약화시키겠다고 하니, 대목왕후는 눈앞에 있는 왕이 원망스러웠다.

“황보 공께서 아바마마를 크게 도운 것을 잘 알고 있소. 허나 호족들의 위세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소. 궁궐에 들어오는 호족들의 옷을 보시오. 나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드나들고 있소. 실력이 있는 호족도 드문 게 사실이오. 높은 관작이 아닌데도 대신 행세를 하고 다니니 나를 보좌하는 관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오. 이제는 과거제를 도입해 실력대로 차등을 두어야겠소.”

왕은 완강하게 노비안검법을 철회하라는 대목왕후의 의견을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박했다. 왕이 호족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자 대목왕후는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은 인정했다. 관복을 제정하여 서열을 확실하게 하고, 과거제(科擧制)를 도입하여 실력 있는 관리를 등용하자는 왕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오. 호족들은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충직한 노비들에게 양민 처자들과 혼인을 시키고 있소. 얼핏 보면 선행 같지만 그게 아니오. 양민 처자와 혼인하더라도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오.”

대목왕후는 왕의 반박에 더 이상 말을 못했다. 노비들이 많은 황주 외가의 처지가 걱정될 뿐이었다. 왕은 자작으로 술을 마시더니 달아오른 취기에 몸을 잘 가누지 못했다.

“상감마마, 그만 쉬시지요. 몹시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급히 마셨더니 취기가 빠르게 오르오.”

“침실에 잠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니오. 내일 이른 아침에 신하들과 논의할 것이 있소. 그러니 오늘은 가겠소.”

왕은 왕비 별궁 침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비틀거리며 말구종 신하를 불러 왕의 침전으로 돌아갔다.

노비안검법으로 해방된 노비들의 숫자는 1만여 명에 이르렀다. 특히 청해진을 폐할 때 노비가 되어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한 군사들의 자식은 1백 년 동안 세습노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들도 역시 면천의 혜택을 받았다. 장보고 반란군으로 낙인찍힌 청해진의 군사들은 모두 노비가 되어 벽골군으로 갔다가 신라가 망한 이후 또다시 나주 오씨, 충주 유씨, 청주 김씨 호족들에게 보내졌던 것이다. 물론 부안으로 가서 도공이 된 노비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선조할아버지가 살았던 청해진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탐진의 토성인 최(崔)씨, 조(曹)씨, 유(兪)씨, 안(安)씨, 정(鄭)씨, 하(河)씨 등은 더욱 귀향길을 서둘렀다.

증조할아버지가 청해진에서 군관을 지냈던 최씨와 하씨는 충주 유씨 집에서 나서는 길이었다. 두 사람은 충주를 떠난 뒤 쉬지 않고 걸었다. 다행히 농사를 거두는 가을철이 되어 내려가다가 일할 곳이 있으면 거들어주면서 숙식을 해결했다. 벽골제를 지나가는 동안 하씨가 최씨에게 말했다.

“성님, 찌그 밭곡석을 거두는 사람이 있으니 쪼깐 도와주고 갈게라우?”
“그라세. 이틀을 쉬지 않고 걸었드니 무르팍이 뽁뽁허내야.”

두 사람은 콩대를 베고 있는 부부에게 다가가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그러자 부부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메. 고맙그만이라우. 근디 으디로 가는 분덜이요?”

“청해진으로 가는디 도와주고 짚아서 왔소.”

“시방이 쟈로 바쁜 철이그만요. 고맙소야.”

두 사람은 농사일이라 하면 이골이 난 충주 유씨 사병들이었다.
두 사람이 일을 거들어주자 밭에 가득한 콩대는 금세 단으로 묶여
밭두둑에 놓여졌다. 부부가 두 사람에게 하룻밤을 쉬어가라고 말했다.

“집이라고 헐 것도 읊는디 자고 가시씨요. 여그서 가든 마실이 읊고
별판뿐이어라우. 노숙허기도 추와서 고상헐 것이요.”

“아이고메, 고맙소.”

“메칠 후 지는 부안 도자기마실로 가는구만요. 거그 가서 잡일허든
시안에 묵을 것이 나온께라우.”

“부안에도 도공덜이 있그만요.”

“멧 대째 도자기를 굽는 고씨덜이 있지라우.”

“근디 뭇 일로 심들게 청해진으로 간다요?”

“고향인께 가지라우.”

“그라든 거그에 식구덜이 다 있졌소잉.”

“아니요, 식구덜은 충주에 있지라우.”

최씨와 하씨는 증조할아버지가 청해진 군관 출신이었다. 청해진을

폐할 때 노비가 되어 벽골군으로 갔다가 양민여자를 만나 자식을 낳고 청주 유씨 집에 노비사병이 되어 목숨을 부지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청해진에 가서 자리를 잡은 뒤 식구들을 불러올 계획이었다. 노비신분이 면천되기는 했지만 식구들을 대하는 충주 양민들의 시선은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부부가 두 사람에게 골방을 내주었다. 두 사람은 벌써 청해진에 도착한 듯 가슴이 설레어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골방 문틈으로 달빛이 새어들어 오기는 했지만 골방은 동굴처럼 퍽퍽했다. 최씨가 말했다.

“동상, 하나부지가 사셨던 청해진에 땅 한 뼘이 읍는다 으째서 요로코름 가심이 벌렁벌렁 현지 모르겠네.”

“땅이 읍기는 지도 마찬가지로. 거그서 어처케 살지 막막허지만 그래도 가고 짚그만요.”

“청해진서는 인자 노비란 소리를 안 듣겠제잉.”

“그라고 봉께 고것 땀시 가고 짚은 거 같소.”

“사실은 나도 그랑마.”

하씨가 오줌이 마렵다며 뒤척였다.

“성님은 오줌이 안 마렵소? 저녁에 짠 짐치를 묵고 물을 한 바가치나 마셨드니 오줌이 마렵그만이라우.”

“짐치가 아니라 소금이드그만. 나도 물을 엉간히 마셨제.”

“칙간이 으디에 있든가요?”

“오줌인디 아무 디나 싸부러. 나랑 같이 나갈까?”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다, 밤이슬에 젖은 잡초들이 달빛에 번들거렸다. 두 사람은 두엄더미까지 가서 오줌밭을 보냈다. 자정 무렵까지 참은 탓에 오줌보가 터질 것만 같았던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움찔움찔 진저리치면서 바지춤을 올렸다. 골방으로 들어와서도 두 사람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다.

“성님, 지는 하나부지께서 말씀하신 것 땀시라도 청해진으로 가야 해라우.”



“무신 말씀인디?”

“하나부지께서 반다시 성제맨치 지낸 청해대사님과 정년 장군님을 제사 모시라고 했어라우.”

“나도 하나부지한테 들었네. 청해대사님과 정년 장군님 땀시 잘 묵고 살았으께 그분덜 은덕을 잊지 말라고 말이여. 그분덜을 위한다든 제사를 지내드리는 것이 쯤로 좋겄제잉.”

두 사람은 장보고와 정년이 자신들의 조상에게 은덕을 베풀었다고 하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라도 청해진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상, 두 분 제사는 정월 보름날이 어처졌는가?”

“농사일이 읊을 땐께 좋겠그만요.”

“우리 둘이서 정헌 날이라서 으쩍지 모르겠네.”

“외지로 나갔던 사람덜이 돌아와서 지켜봄시로 연못을 파든 개구락지
뛰어들데끼 하나 둘 모이겼지라우.”

“도공덜 조상덜도 청해대사님 은덕을 모다 받았응께 탐진 사람덜도
호응이 클 것이그만.”

“하나부지 말썸으로는 청해대사님이 당나라 청자기술을 가져왔다고
하시드그만요.”

“공께 청해대사님이 탐진 청자 대부(代父)시제. 글고 탐진 땅에서
침으로 청자를 맹근 도공덜은 도조(陶祖)가 되는 것이고.”

“대부는 뿔이고 도조는 뿔인게라우.”

“아따, 대부는 청해대사님이 탐진 땅에 청자기술을 가져왔응께 대부가
되는 것이고, 그때 도공덜은 침으로 청자그럭을 맹글었응께 도자기
하나부지 도조가 되는 것이제,”

두 사람은 꼭두새벽에야 토막잠을 잤다. 짧은 토막잠이었지만 한 번도
깨지 않은 통잠이었다. 길을 가다가 농사일을 거들어주며 숙식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고단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큰 대(大)자로 죽은 듯이 통잠을 잤던 것이다. 내일은 초산(楚山, 정읍)까지
갔다가 다음날에는 진원(장성), 그리고 다음날에는 무주(광주)에 도착해야만
며칠 안에 청해진으로 들어갈 수 있을 터였다. <계속>